“이건 뭐지?”

아무것도 모른 체 앞으로 나아가던 나는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

시선이 느껴졌다. 굉장히 기분 나쁜 시선들.

정육면체의 물체에서는 그림이 계속 바뀌며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다.

“뭐야, 텔레비전 몰라? 아, 그래. 지옥은 처음이었지.”

“간단히 말하자면, 미래의 물건이다. 지옥은 시간의 개념이 희박하지. 뒤틀려 있거든. 오늘 죽은 사람이나, 미래에 죽은 사람이나 모두 같은 공간에 있는 거다. 만들어지는 것도 비슷하지.”

“그렇군..”

“그리고 너가 멍청하게 시련이다 뭐다 하는건”

“전부 연극이다. 모든 것은 계획되어 유흥으로 쓰여지는 거야.”

“넌 지금 지옥 최고의 장난감이야! 하하하하하하!”